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7일(월) 총 11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복지정책팀장 이순구 ☎440-2911 • 담당자 고경옥 ☎440-2913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 여성정책팀장 이상철 ☎440-2691 • 담당자 강명옥 ☎440-2692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보건정책팀장 김순심 ☎440-2711 • 담당자 윤신원 ☎440-271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복지·가족·건강체육분야 업무보고>**  
**인천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위한 전방위적 지원 ‘주력’**  
 - 감염병전문병원·국립대병원·제2의료원 설립 등 추진 집중-  
 - 시민 복지 체감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차질없이 진행 등도 논의 -

인천광역시가 올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및 인천 제2의료원, 영종지역 국립대 병원 유치 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7일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2022년 복지·가족·건강체육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시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장 대면·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된 인천지역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

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 유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또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영종지역 국립대 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매월 ‘공공의료발전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설득을 위한 사업방향의 차별화 전략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도 이달 중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다.

이외에도 시는 건강체육 분야에선 중증외상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응급의료기관·권역외상센터가 연계한 ‘시민안심 응급의료체계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체육시설 중심의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준공 및 천연잔디구장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에서 공공의료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대 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제2의료원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추진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일단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 올해 추진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은 1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액급식비 월 5만원·관리자수당 월 10만원 지급은 올해부터 신규 추진 중이다.

시는 종사자 처우개선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인천형 단일 임금 민·관협의 추진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서 개정 ▲ 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확충, 어르신을 위한 인천형 일자리 친화환경 조성 사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분야에서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이 언급됐다.

국공립·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 공보육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총 70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공간 및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아이사랑꿈터’도 14개소 늘릴 예정이며,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분야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여성  
경력이음 및 고용유지 강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다함께 돌봄센  
터 확충·운영 ▲위기가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자녀 온라인학습 지원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 시장은 복지와 관련,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공  
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관심  
이 중요하다. 특히 종사자분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하는 만큼 이분들 처우 개선에 각별히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  
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참고> 1. 복지국·여성가족국·건강체육국 2022년 10대 과제  
2. 복지국·여성가족국·건강체육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별첨)

## < 핵심목표 >

### ① 인천복지기준선 적정선 도달을 위한 실행력 확보[핵심][협업][공약]

- 시민평가단 평가결과 반영 등 현장 수요중심의 복지기준선 관리·운영 계획 수립 추진('22 ~ '25)

\* ▲이행체계(市)와 평가체계(평가단) 협업·지원강화, ▲시민체감형 성과지표 설정, ▲시민만족도 조사

## < 취약계층 지원 >

### ② 저소득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핵심]

-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확대 : 4,400명(300명 ↑)
- \* ▲기존 자활사업장 인력 추가 배치, ▲신규 자활사업장 확충
- 인천형 꿈이든일자리사업(50명) 및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10,700명(5,856명 ↑)

### ③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핵심][뉴딜]

- 「정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가구 지원\* : 220세대 / 970백만원
-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중지)자에 대한 인천형 긴급복지 연계지원 : 1,500백만원

### ④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핵심][공약][뉴딜]

- 공공일자리 971명(전년대비 115명 ↑) 및 민간기업 취업 연계 300명(전년대비 50명 ↑)
-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창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발달장애 청년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산형성자금 지원(400명)
- \* ▲'21년 선발 200명(납입유지), ▲'22년 신규선발 200명

### ⑤ 장애유형을 반영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핵심][뉴딜]

-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탈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22 ~ '23)
- \* ▲장애인거주시설 대상 탈시설 시범사업(1개소), ▲장애인지원주택사업 54호(목표)연계 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8,286명)
- \* ▲국시비 활동지원(5,942명), ▲인천형 활동지원 1,060명(중증 1,000명, 최중증 60명), ▲국시비 주간활동(557명), ▲인천형 주간활동(174명), ▲방과 후 활동(553명)

## ⑥ 어르신 노후·일자리 친화환경 조성[핵심][뉴딜][공약]

- 어르신 일자리(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확충(46,051명, 2,685명 ↑)
  - \* ▲공사·공단 및 금융기관 등 행정업무 지원, ▲아동쉼터 등 전문돌봄서비스 지원 등
  - \*\* ▲(신규 사업) 시니어드림스토어 확대, 학교 안심 방역단 등 추진
-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및 인천만의 독자적인 안심폰사업 추진  
으로 안전체계 마련(노인맞춤돌봄서비스 13,904명, 안심폰 보급 8,522명)
  - \* ▲어르신 상시 모니터링, ▲안부확인 및 긴급대응(수행기관 24개소, 생활지원사 852명)

## < 인프라 강화 >

## ⑦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핵심][공약]

- 전문 인력확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당, 후생복지 지원
  - \* ▲정액급식비(월 5만원), ▲관리자수당(월 10만원) 신규 지원
  - \*\* ▲호봉제 도입시설 및 임금보전 국비시설 보건복지부 임금권고기준 준수율 97%확대 ▲국비 시설 장기근속 유급휴가 도입,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인상(50%→70%)

## ⑧ 인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핵심][뉴딜]

- 인천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22) 등 사업추진
  - \* ▲시범공모사업(동구·미추홀구·부평구), ▲역량강화(심화컨설팅 확대, 토론회), ▲시민지원단 운영
  - \*\* ▲인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작

## ⑨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핵심][협업]

-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격리형 시설이 아닌 휴식 및 놀이형 모델
  - \* ▲고령자 맞춤(유연성, 균형감각, 인지능력) 운동기구 설치, ▲휴게시설(소통 및 휴식환경) 조성 등
- 복지와 문화가 결합된 실버놀이 문화도입 → 베이비부머세대 노년기 대비
  - \* ▲('22년 1단계 시범사업 7개소) 중구1, 연수구1, 남동구3, 부평구1, 계양구1, ('23년 이후) 경로당, 노인복지관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

## ⑩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주요]

-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 공헌한 월남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명예 선양
  - \* ▲사업개요 : '22. 1.~ '22. 12.(총사업비 7억원), ▲위치 : 수봉공원 망배단 內 (700㎡)

## ①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친화기업 선정확대

- 여성친화도시 군·구 특화사업 확대 지원 ('21) 130백만원 → ('22) 200백만원
  - \* 광역협의체 운영, 네트워크 활동 공간조성 확대 지원,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여성친화도시 지정확대
  - \* ('21) 5개구(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 → ('22) 재지정 및 신규지정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확대 ('22) 20개소 → ('23) 30개소
  - \* 여성 전용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지원, 채용장려금 1인 100만원 지원(기업당 2명) 등

## ② 인천형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
  - \* 공보육 이용률 ('20) 29.7% → ('21) 35% → ('22) 40% 달성 추진
  - \* 연차별 확충목표(누계) : '18년 425⇒'19년 495⇒'20년 565⇒'21년 640⇒'22년 720개소
- 아이와 함께하는 보육 친화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22. 4월 착공)<sup>[협업]</sup>

## ③ 영유아기 맞춤형 양육 지원으로 가정육아 활성화

-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확충'
  - \* ('20) 21개소 → ('21) 36개소 → ('22) 70개소 → ('23) 100개소
- 육아고민 해결사 '찾아가는 아이사랑플래너(70가정)' 운영
- 부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인천아빠육아천사단(1,215명)' 운영

## ④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체계 강화

-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설치(하반기)
  - \* 미추홀구-여아전용 1개소, 부평구-남아전용 1개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1개소), 자립지원전문가 배치(6명),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⑤ 가족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지원 사업 확대

- 인천형 청년한부모 지원 및 청소년부모지원사업 확대('22~)
  - \* 인천형 청년한부모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22년 참여예산), 청소년부모 전문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등
- 결혼이민자 및 자녀 직업훈련교육 대상 확대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
  - \* ('21)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279명) → ('22) 결혼이민자 및 자녀 직업훈련교육(약 375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및 학습·정서 지원
  - \* 다문화자녀 온라인 학습 지원(130명), 다문화자녀 1:1 멘토링 지원(170명)

## ⑥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

- 지역 중심의 선제적 예방대책 및 피해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지원
  - \* 피해 접수부터 삭제·동행, 수사·재판 모니터링 연계 등 원스톱 지원('21~)
  - \* 의료 및 심리상담 등 치료비 직접 지원('21~), 무료법률 지원사업('22~), 디지털 성범죄 특화 치유프로그램 운영('21~)
- 피해자 원스톱 지원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업무협력\* 강화
  - \* 경찰청, 교육청, 피해지원 관련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21~)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 국비 42백만원

## ⑦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상반기 건축기획 용역 착수)
- 중구, 연수구, 계양구 청소년활동 공간 기반\* 구축 지원
  - \* 중구 수련관(2월 준공), 계양구 문화의집(5월 준공), 연수구 수련관(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⑧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단계적 추진('22~'25)
  - \* ('22년) 만18세, ('23년) 만17~18세, ('24년) 만15~18세, ('25년) 만11~18세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 \* 연령 : 만11~18세 → 만9~24세 (만 9~10세, 19~24세 추가)
  - \* 지원금액 : 월11,500원(연138천원) → 월12,000원(연144천원)

## ⑨ 돌봄 안전망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광역·기초 돌봄협의회 운영 및 돌봄시설 확충을 통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 \* 광역돌봄협의회 운영 및 기초돌봄협의회 미구성 3개 군·구 구성 독려
  -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확충 (22개소 → 32개소)

## ⑩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확대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확장이전
  - \* 민간위탁(수탁기관 공모 후 '22.3월부터 위탁), 확장이전('22.1월~3월, 現 3층 → 8층)
-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확대
  - \*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시비 지원(44백만원)
  - \* 외국인주민(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연수구, 남동구 / 100명, 340백만원)



## 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핵심][협업]

-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 및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22~)
-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22~'25), ▲인천 제2의료원 설립추진('22~'26),  
▲국립대학병원분원 유치 및 설립추진('22~'26) ▲인천의료원 의료시설 기능강화('22~'23)

## ② 시민안심 응급의료체계 안전망 구축 [협업]

- 닥터-카, 닥터헬기 운영·지원 지속 전개('19~)
- 도시형 광역 지자체 지역외상체계 모델\* 구축('20~'22)
- \* ▲지속 가능한 외상주체 거버넌스 운영('21 ~), ▲의료자원·GIS 분석기반 지역맞춤형 외상 진료 지침 보완 및 적용('22 ~), ▲교육 및 홍보('22 ~)

## ③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핵심]

-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소(49개) 지속 운영 및 전담병상 추가 확충
- \* ▲선별진료소 11개 ▲선별 의료기관 21개 ▲임사검사소 17개 ▲전담병상 1,418병상 (324병상 ↑)
- 감염병 연중 기동감시 및 대응 (연중 24시간 비상체계)
- \* ▲명절 연휴 비상 방역, 감염병 집단발생 모니터링 ▲감염병 및 재해대비 비축물자 지원
- 지자체 감염병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 시·군·구 감염병 전담부서 공무원(11명) : 현장대응, 감시자료 분석·해석·지역정보 환류 교육

## ④ 코로나19 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핵심]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22 ~)
- 결핵환자 관리 강화\*\* 및 지역 맞춤형 감염병 매개체 방역 실시 ('22~)
- \* 어린이(17종), 어르신(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고위험군(임신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 ▲결핵고위험군 등 검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격리치료 입원명령 및 환자 관리

## ⑤ 선수 중심의 스포츠 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핵심]

- 스포츠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5개년)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확대
- \* 인천시, 체육회, 군·구, 공단 운동경기부 대상 :100회('21) →150회('22)
-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침 전부개정을 통한 스포츠인권 보호 확대




## ⑥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핵심]

- 인천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정 운영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 ▲지정기간 '22~23년, ▲내용: 스포츠+관광 연계 등
- 인천형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기반 구축
  - \* New스포츠 발굴 및 대회 개최,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
- 공공체육시설 유휴 공간 활용 스포츠 산업분야 창업지원
  - \* 창업공간 제공(서구아시아드 주경기장), 사업화 지원 및 실증 지원 등
-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준공('22.6월) 및 천연잔디구장 조성 설계용역 시행

## ⑦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강화 [핵심] [뉴딜]

- ICT 활용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 ▲워크온 회원가입 목표 확대(8만명) ▲지역기반 헬스빌리지 사업 확대(14개)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확대(960명)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조성(30개교)  
▲주요도로 횡단보도 금연안내 표지판 설치(50개)

## ⑧ 코로나19 일상회복 심리지원 및 자살예방정책 강화 [핵심]

- 찾아가는  심리지원 확대\*('20~) 및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강화\*\*('21~)
- 대시민 생명지킴이 양성\*\*\* 및 코로나19 취약계층 자살예방 선별검사 및 발굴·관리 강화('21~)
  - \* ▲찾아가는  안심버스 운영(주 2회 이상) ▲  심리지원단 운영(36개반 120명) 등
  - \*\* ▲24시간 정신응급 상담전화(1577-0199) 운영 및 출동 ▲정신 응급병상 운영(3개소 4병상)
  - \*\*\* ▲분야별 단체 생명지킴이 위촉(1,200명) ▲시민 생명지킴이 양성(25,000명)

## ⑨ 식중독 발생 예방관리 및 예방진단 컨설팅 [핵심] [협업]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12,442개소) 집중관리, 계절별·테마별·사회적 이슈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15회 3,561개소)
- 식중독 발생 대책반 운영(11개반 63명) 및 모의훈련(10회) 강화,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및 식중독균 검사(20개소)

## ⑩ 수준 높은 음식점 운영 및 생활방역 지원 [핵심] 환경특별시

- 안심식당 신규 지정(1,100개소) 및 현장점검에 따른 사후관리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460개소) 및 컨설팅·기술지원
- 음식점 육성자금 지원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300백만원)

## II 현안과제

### ⑪ 지역 내 국가 재난대비(감염병, 항공사고 등) 의료시스템 구축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 수도권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의료기관(총 4개소) 다수 참여로 치열한 경쟁 예상
  -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철저한 평가 준비 (대면 및 현장평가)
  -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전개
-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및 설립)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 협조·지원 필요
  - ▲ 교육부 및 기재부 설득을 위한 사업 방향의 차별화 전략 발굴
  - ▲ 국립대병원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 ▲ 국립대병원 분원 운영 관련 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 조사 추진

### ⑫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대비 인천시 대응방안

- (선제적 대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검사 수요 급증 시 PCR검사 우선 순위 선정 운영
  - ▲ 감염취약 고위험군,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시설 등)
  - ▲ 무증상자는 자가 진단키트로 先 검사 후 증상 발현 시 PCR 검사 실시
- (병상 효율화) 중증·준중증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 구축 및 재택치료 역량 강화
  - ▲ 파견 의료인력 지원(군외관·공보의 20명, 간호사 126명, 간호조무사 51명, 의료기사 7명, 요양보호사 21명)
  - ▲ 관리 의료기관 확대지정(10개소 → 13개소 /사랑병원, 힘찬병원, 뉴성민병원)
  - ▲ 재택치료 전담 의료인력 증원(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간호사 3~5명)